



Peter Roskam

(U.S. Representative for Illinois's 6th congressional district)

Peter James Roskam (born September 13, 1961) is the U.S. Representative for Illinois's 6th congressional district, serving since 2007 and is the Chief Deputy Whip in Congress, the fourth-ranking Republican leader in the House.

Peter dubbed a “Rising Star” by the *Chicago Sun-Times*, *Roll Call* and others, Roskam is a conservative policy and political leader. He serves on the influential Ways & Means Committee, leading the fight for conservative policies on taxes, trade and healthcare. The *Washington Post* writes that "Roskam’s positions should debunk the notion that there is some gap between GOP leadership and the grass roots."

Peter graduated from Glenbard West High School, where he was a varsity athlete and school leader. Later,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Law School, Peter served as a staffer for his predecessor, the legendary Chicagoland Congressman Henry Hyde.

Back in Illinois, Peter continued his service to the community. He ran a non profit scholarship program for disadvantaged youth, Educational Assistance Ltd. In 1992, he was first elected as a State Representative to serve the people of Chicago’s western suburbs. He served until 1998 and then again as a state Senator from 2000-2006, where he was the Republican Whip and Floor Leader.

Congressman Roskam is known as a pro-Korea representative in the Capitol. Currently he is a co-chair of Korean Caucus. His father was a Korean War veteran. Congressman Roskam has an adopted Korean brother (who is a medical doctor). Congressman Roskam visited Korea in 2010 with wife, father and mother for the 60th anniversary of outbreak war. He was strongest supporter of KORUS FTA. He was also instrumental in President Park Geun-Hye’s joint session speech. Roskam recently introduced the “Partner with Korea Act” to facilitate increased business opportunities following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through creation of up to 15,000 E-4 highly-skilled work visas for Korean nationals.



피터 로스컴

(일리노이즈 연방 6 지역구 하원의원)

피터 제임스 로스컴 (1961년 9월 13일 출생)은 일리노이즈 주 연방 6 지역구 하원의원으로 현재 4선 의원이다. 공화당내 서열 4위에 올라 와있으며 현재 공화당 원내 부총재 (Chief Deputy Whip)이다.

로스컴의원은 시카고 선 타임즈, 롤콜 등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떠오르는 인물”로 뽑혔으며 미국내 보수적인 정책과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인물이다. 그는 의회내에서 권한이 막강한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조세, 무역, 의료정책에 관하여 보수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대표 주자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로스컴의 위치가 공화당내 리더쉽과 민중사이에 거리기(gap)있다는 인식이 들렸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로스컴의원은 Glenbard West High School 졸업하였고 고등학생 시절 학교 육상대표선수와 학생대표를 지냈다. University of Illinois 와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Law School 을 졸업 후, 로스컴은 그의 전임자이자 시카고 지역의 전설적인 연방하원의원인 헨리 하이드의 보좌관으로 일하였다.

이후 일리노이주에서 로스컴 커뮤니티를 위해 계속 봉사하였다. 그는 Educational Assistance Ltd. 라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비영리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92년에는 일리노이 서부 교외지역 사람들을 대표하는 주 하원의원으로 처음 선출되었고, 그 후 그는 1998년까지 일리노이 주 하원으로 일하였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일리노이 주 상원으로 일하며 공화당 원내 총무직을 지냈다.

로스컴의원은 미 의회내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로스컴의원은 미 의회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의사인 한국인 형제 (입양)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부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한국전 발발 60주년기념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의 강력한 지지자 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는 최근 “Partner with Korea Act”라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을 따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업기회 증가를 위한 발판으로 한국인 전문직 노동자만을 위한 E-4 비자를 15000 개를 개설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